이슬람文庫 4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이스람과 성 예언자 무함만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이슬람文庫 [illegible]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이스람과 성 예언자 무함맏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목 차

(Table of Contents)

이스람文庫 4

이스람과 성 예언자 무함맏

ISLAM AND THE PROPHET OF ISLAM
A BRIEF INTRODUCTION

By

Maulana S. M. Jamil

이 스 람 교 란

WHAT IS ISLAM

이 스 람 이 란

이스람을 그어원과 실제적인 면에서 볼때 지구와 전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에의 복종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모든 면을 전지 전능한 조물주의 명령과 섭리에 복종시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스람은 이세상의 모든것이 그 어느것이고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통솔된다는 사실적 기초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지구 일(日)·월(月)·성(星) 진(辰)이 존재와 그 운행은 절대적으로 (固定된 方向)과 속도하에 유지되고 있는데 이 모든것이 우연이 아닌것이다. 태양과 성군(星群)의 끊임없는 " ENERGY " 의 작동이며 성군과 태양계 주위의 회전, 그리고 계절의 규칙,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상호유관성을 지닌 규칙하에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생명체, 무수한 동식물의 종자는 생명의 유지와 재생을 위하여 그 설계와 준비가 각기 완성체이며 이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 절대 권위자이며 설계자이고 유지자인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되고 통솔되고 있는 광대무한한 우주의 법칙과 형태의 주체인 것이다. 생명체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을 하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수도 있으며 선악을 구별할수도 있고, 사랑, 정의,

관대의 감정등을 힘의 소유자만이 인류와 기타 종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협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무수한 피조물(被造物)에게 "이와같은 힘"을 주는 존재는 무한한 힘의 소유자인 것이다.

살아 있고 창조를 하고있고 그리하여 창조한 바 피조물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권위자를 우리는 「알라」 혹은 그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존재」로서 수억, 수백만, 수천 혹은 열 이나 셋 일수 없으며 오직 「하나」인 것이다. 이스람의 둘째번 근본원리는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조물주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높은 역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 피부색, 국적을 초월하여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조물주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이스람」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이스람」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대리인으로써 높은 대좌위에 창조되였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기의 품성을 개발시켜서 자아를 최대한으로 함양하겠끔 생명이 부여된 것이다. 인간에게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이 세상 모든것은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며 법칙과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활용하

게끔 지시(指示)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땅, 바다, 하늘, 지하와 지상의 모든것을 지휘하게끔 생명력이 주어진 것이다 태양, 달, 별…………이 모든것은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그 봉사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또한 인간을 둘러 싸고 있는 무수한 것들의 조화와 미(美)에 의하여 육체적 생존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목적과 방법론을 지닌 실체로서 저마다 완전한 존재인 것이며 이 모든것은 다 전지 전능한 조물주의 상호 의존해 있고 그것을 개발, 이해. 추구 함으로써 개인의 중심, 육체적, 정신적, 지적 향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태도와 정신적 문화적 이해를 망각할때는 단순한 환경의 개발과 개인적 이용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며 급기야는 소위 물질주위로 흐르는 나머지 뿌리깊은 사회적, 갈등, 무정부상태등 참다운 문화의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물주와 문화적 법칙에 대한 무관심과 불복종은 그것이 초래하는 귀결을 부정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자아의 높은 인품을 완전히 훼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결백한 상태로 태어났으며 자

기의 행위태도에 따라서 장식되거나 훼손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자질을 구비하고 태어나 높은 대좌(台座)위에 올려지는 것이다. 인간, 개성의 창조력과 함양(涵養)을 지도하기 위하여 전지 전능한 조물주의 섭리는 처음부터 여러지역과 민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으며 통신수단이 개발되자 인류의 지도를 위한 우주적인 규칙이 마련되였고 그리하여 이것을 교체(交替), 가필(加筆) 필요가 없음을 확신 하게 이른 것이다. 매일 다섯번 예배때 마다 예배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히고 있는 「ARAB語」(아랍어민족 非아랍어민족을 막론)는 70 개국 9억 인구의 입에서 매일같이 암송(暗誦)되는데 이와같이 경전이 읽혀지는 것은 「QURAN」뿐이라 하겠다. 「쿠란」(經)속에 윤곽이 쓰여져 있는 규칙과 원리의 (內訳)은 우주적 예언자가 인간의 사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정치생활 모든 면에 인류의 모범이자 봉화가 되도록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성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지 전능한 조물주는 양식, 의복, 주택, 교통, 의약과 같은 것으로 육체적 생존에 도움이 되는 무한한 것을 마련하는 한편 예언자를 통해서 인류에게 전달된 지도로서 인간의 문화적, 정신적 존재와 개발향상의 수단도 아울러 마련해 주었음을

「이스람」에서는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인류에게 광명을 전달한 전달자로서 인간 이상의 것이 아닌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인류가 받은 광명을 우리는 이것을 계시(啓示)라고 말하는데 저술의 기술이 발달되어 계시가 책으로 쓰여지게 되었거나 과장과 누락이 있게 됨으로서 신의 섭리와 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대에 따라서 예언자들을 보내 주시게 되였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최종적 예언자인 「Muhammad」을 통해서 인생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영원 하고 완전무결한 한 권의 책으로서 우주적인 규범이 이세상에 보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자도 어디까지나 (神)의 창조물의 하나로서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부여되었고 그 분별을 행사하여 각 개인마다 자기의 성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일반적 생(生)을 통해서 정의가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가령 한사람이 천명을 살인 했을 경우 체포되어 사형을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정의의 순환은 불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한사람이 천명을 죽이고 사형당하므로써 한사람의 목숨과 바꿔진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더욱 나쁜 것은 이러한 악폐가 상당한 시기를 두고 자행되기 때문이다. 인생의 길이란 오직

죽어 저 세상에 형벌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 세상에 있어서의 이 정의가 필요 불가결하지 않는다면 집단 생활하는 세계와 사회는 무정부상태로 될것이며 인간의 개인생활은 무한정한 침략적 잔학과 무법천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생은 내세(來世) 에 계속되고 그리하여 이생애에서의 선악에 따라서 내세 에서 정의의 판단을 받는다는 이 무수한 인생관은 인간의 품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개인생활, 단체생활에서 무시되고 있다. 죽음후의 영원한 "삶"을 믿고 그러기에 수업(修業)과 자제(自制)의 인생을 영위하여 절대자와 그 섭리에 헌신하며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사회와 나아가서는 세계를 바로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간들의 집단이 존재치 않을때는 암흑속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스람」에서의 인간의 자기 행위의 선악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생에서의 선악을 내세에서 정의에 의하여 판정 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자기 행위의 선악에 대하여 각자 책임이 없고 조물주의 정의에 의하여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인생관이 없을경우 영원하고 경이에 싸인 절대자의 주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방종과 무책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웅대하게 조직

된 이 우주의 지고(至高)한 목적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이스람」에서는 개인의 회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개인의 회생으로써는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즉 자기의 선악에 대하여 자기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한 저마다 성품을 향상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만약 신이 신의 아들로 하여금 회생케 하였다면 계시(啓示)의 율법과 종교의 이념과 목적을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이든 자의로 할 것이고 기껏해야 인간 집단이나 국가를 위한 율법을 만들어 낼뿐이며 율법은 자연적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것이어서 종식을 모르는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다.

山上 수훈에서 「예수」 자신은 말하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啓命중에서 지극히 작은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자로 일컬음을 받을것이니라」 또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나니 「간음하지 말라」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자 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나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서 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빠짐보다 몸의 기관하나를 잃음이 나으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부정한 경우 이외는 아내와 이혼하는 자, 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함이요 또한 이혼 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 5,17,18,19,27,28,29,30,32)

산상(山上)의 수훈에서 예수는 또한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하는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그런고로, 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집을 반석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마가 지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디치되 무너지지 아니함은 반석위에 세운 연고요, 내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아 비가 내리고, 장마가 지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딛치어 무너지리니 그 무너짐이 대단하리라」 (마태복음 : 7,21,24,25,26,28)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다음부터 설교해온 "속죄"의 교리를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의 이 말씀은 개인의 책임과 신의 섭리의 전적인 복종을 명백하게 단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리스

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하였으되 「나무에 달린자 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뇨」, 「믿음이 오기전에 우리가 율법아래 매인바 되어 믿음이 나타날때까지 갇혔나니라 이러한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관리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하려 하였나니라.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매 우리는 관리인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 3-13, 19, 23, 24, 2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놓아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 5-1)

이상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相反)된다.

「무스림」은 이것을 진리와 상반 하고 스스로를 사도라고 선언한 예수의 뜻과 어긋나는 반기독로 간주한다.

「무스림」은 예수를 신의 예언자 (선지자)로 믿는다. 그러나, 예수의 산상수훈을 믿으나 사도 바울이나 희랍 철학으로 믿는게 아니라 「이스람」의 경전(經典)인 "쿠란"에는 이사(예수), 무사(모세), 야꿉(야곱), 이삭, 이브라힘의 예언을 거듭 선언하고 있고 특히 이브라힘을 예언자 선로

믿는다. 예를 들면 쿠란 Ⅱ장 124절과, Ⅱ장 45절-5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24節)-「그리고(기억하라) (主)께서 계명(啓命)을 내리어 이브라힘을 시험하니 그는 이를 이행하고, 주께서 말하기를 "그러면 나의 후손중에서 지도자들이 있겠읍니까? 주께서 말하기를 나의 뜻에는 그릇 행하는 자는 들어 있지 않느니라"」

(125節)-「그리고 우리가 멕카에 인류를 위한 성스럽고 안전한 집을 정하니 말해주라 이브라힘이 예배 보았던 자리를 택하라. 그리고 이브라힘과 이스마일에게 의무를 주었도다(말해주라)주위를 도는자, 명상 하는자(예배를 보며) 머리를 숙이고 부배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집을 정화하라.」

(126節)-「그리고 이브라힘이 예배를 올리기를 "주여 이곳을 안전의 장소로 만드시고 이곳 사람들에게 과실을 내리소서.. 그들중에는 "알라"를 믿고 최후의 심판 날을 믿는 자도 있나이다. "알라" 답하기를 믿지 않는자들 역시 잠시동안 즐기려하나, 다음은 화형의 천벌을 받고 무서운 악마의 속으로 떨어지려니」

(127節)-「그리고 이브라힘과 이스마일이 성소의 기초를 세우며(예배하기를) (우리의)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주여, 진실로 당신은 기도

를 들으시며 전지 하시도다」

(128節) -「(우리의)주여, 우리를 당신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당신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소서. 주여 진실로 당신은 우리를 측은히 생각하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이거니」

(129節) -「(우리의)주여, 그리고 그들중 (에서) 선지자 한분을 그들에게 보내 주옵소서. 당신의 계명을 암송(暗誦)케 하시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치시어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오직 전능(全能)하시고 전지(全知)하시거니」

(130節) -「그리고 이브라힘의 종교를 버리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느니라. 진실로 우리는 그를 이 세상에서 선택하였나니 그는 저세상에서도 의로운 자 이니라」.

(131節) -「주께서 그에게 말하되 "복종하라"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전세계에의 주께서 복종하였나이다.」

(132節) -「이브라힘과 야꿉과 그의 자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오, 나의 아들들아, 보라! "알라"는 너희들을 위해 참다운 종교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알라"에게 복종하는자 영생하리라.

(133節) -「야꿉이 임종시(臨終時)에 그의 자식

들에게 〃너희들 무엇을 숭배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신 당신의 선조 ,이브라힘, 이스마일, 이삭의 유일신(唯一神)을 섬기어 그분에게 복종하겠읍니다.

(134節) -「이는 지나간 사람들이니라. 그들은 그들이 행한대로 열매를 거둬드리라. 그 사람들이 한일은 너희와는 무관하니라」.

(135節) -「그들은 말하되 〃너희들은 유태교인이나 기독교인이 되면, 옳은 길로 인도 받으리라. (그들에게 말해주라. 오! 무함맏이여.) 아니로다. 우리는 옳바른 이브라힘 종교를 따르리다.

(136節) -「오, 무스림들이여 이렇게 말하라. 〃우리들은 알라를 믿고 우리에게 계시가 내려진것과 그리고 이브라힘과 이스마일과 야꿉과 그 부족(部族)에게 계시가 내려진것을 믿읍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읍니다. 우리들은 〃알라〃에게 귀의 하나이다.〃 라고」

(137節)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너희와 같은 신앙을 갖게되면 그들도 옳은길을 찾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신앙에서 멀리하면 분렬을 일으키게 되니라. 그러나 〃알라〃는 너희들의 충분한 보호자가 되리라.」

(Ⅱ章 45節) -「그리하여 〃기억하라〃고

천사들은 말하였다. 「오! 마리아 보라 진실로 알라께서 너에 대한 기꺼운 말씀을 해주셨다. 그 이름은 마리아의 아들 이사(예수)이니라 그는 이 세상과 내세(來世)에서 영광스러운 몸, 알라의 가까운 사람중의 한 사람이 되려니」.

(46節) - 「어렸을때도, 어른이 되여서도 그는 인간에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47節) - 「그녀가 〃주여. 아직껏 이몸에 손댄 남자가 없었거니 내 어찌 자식을 갖을수 있겠나이까?〃라고 말할때 「갖게 되리라」 알라는 뜻대로 무엇이든 창조하시니라.

(48節) - 「또한 그분은 그에게 성전, 지혜, 율법,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시고」.

(49節) -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사도로서 보내시리라. 진실로 나는 너희들이 주의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 앞에 왔느리라. 진실로 너희들을 위해서 흙으로 새를 만들고 그것에 입김을 불어 넣으면 알라의 허락에 따라 한 마리의 새가 되리라.
나는 날때부터 장님인 사람과 문둥병을 고치고 알라의 허락으로 죽은자를 소생케 할 수 있느리라. 너희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으며, 집에 무엇을 쌓아 두고 있지도 알수가 있느니라. 진실로 너희들을 위하여 보내신 신의 증거가 있느니라. 만약 너희들에게 신앙

있다면」.

(50節)-「나는 내 전에 있던 구약을 확인하고 또한 너희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부를 합법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나는 신의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온자이니 너희는 알라의 명을 명심하고 나의 말에 순종할 지어다.」

(51節)-「진실로 알라는 나의주 너희들의 주 이시니라. 그러하니 알라께 예배할 지어다. 이것이 바른 길이로다.

(52節)-「이사(예수)가 그들중의 불신감을 알게되자 "나를 도와 알라에게 봉사할자는 없느냐?"고 물으니 제자들 말하기를" 우리들이 알라를 돕는 자가 되오리다. 우리들이 알라를 믿거니, 우리들이 진실로 무스림임을 증명해 주소서.」

(53節)-「우리들의 주여! 우리들은 당신의 제서를 믿고 당신이 보내신 선지자를 따르겠나이다. 우리들은 진리의 증언자와 같은 대열속에 기입(記入)해 주소서」.

(54節)-「불신자들은 여러가지 책략을 쓰고 알라께서도 계획을 세우셨도다. 알라는 가장 탁월한 고안자이로다.」

(55節)-「(그리고 기억하라) 알라는 말하셨도다. 오, 예수여! 내 너를 내옆에 불러 앉히리

라. 신앙이 없는 자로부터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뒤를 따라 온자들은 부활이 올때까지 무신앙자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리라. 그리하여 부활의 날이 오면 너희들 모두 나에게 되돌아와 나는 너희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저지른 일을 심판하리라.

(56節)-「불신자들에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내 무서운 벌을 주리라. 누구하나 그들을 도와줄자 없느니라.

(57節)-「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고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겐 알라께서 충분한 상을 내시리라. 알라는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사랑하지 않느니라.」

(58節)-「이것은 우리가(알라) 너에게(모함만) 여러가지 신의 증거와 지혜의 가르침을 읽어준 것이니라.」

(59節)-「진실로 알라의 눈에는 예수는 꼭 아담과 같은 것이로다. 그를 먼지로 만들어 놓고 생명이 있으라 말하자 그는 그렇게 만들어 졌느니라.」

경전 처음서부터 선지자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람이 참종교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그 완전성을 재필(再筆)하지 않을 수 없을때 그것은 경전의 훼손, 감소, 요약을 가져올 뿐이다. 요컨대 "이브라힘의 이스람과 모하맏의 이스람은 다른,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같은 것이니. 예수에게 내려진 계명이 우리에게 부분적

으로 내려왔고 또 예수의 사후 오랜 후세에 와서 희랍어나 라틴어로 쓰여졌으며 이는 예수의 언어였던 " ARAMAIC "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였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수가 사용한 언어는 전해 내려오지 않았으며 완전히 상실했다. 신약성서는 예수 사후 2세기 내지 3세기 되는 시대에 예수의 언어가 아닌 다른 말로 완성되었는데 그러기에 희랍과 애급의 " Logos "의 철학등이 혼합되게 되었다. 따라서 우주에 있어서 인간의 높은지위 민족, 피부색, 언어, 국적의 차별없이는 인류의 평등성, 전지 전능한 조물주에의 복종, 광명으로 함양하는 인간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내려진 우주적인 교훈과 계명의 재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도덕과 사회적, 정치적, 율법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재필을 해야만 되었던 것이며 인간은 개인적 책임과 미래에 대한 높은 희망을 안고 조물주의 종이자 대표자라는 운명을 띄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성 예언자 무함마드의 참 모습

SOME ASPECTS OF THE UNIQUE PERSONALITY OF PROPHET MOHAMMED

성 예언자 무함마드의 참 모습

성 무함마드는 온 누리를 위대한 예언자들과 견주어 오직 그만이 틀림없는 현실적인 생애를 마쳤다는 사실로 미루어 역사에 눈부신 빛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알려져 있읍니다.

그의 일생의 기록은 정확한 날자와 아울러 많은 나라들의 역사적 기록에 남아 보존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성 무함마드에 관하여서는 추호의 불가사의도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황당무계한 신화 따위도 전혀 없읍니다. 모든것이 수정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주위의 우상숭배의 야만적인 상태, 그와 이스람신자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와 고의적인 핍박, 에티오피아 및 메디나에의 천도, 에티오피아, 비잔틴이란 황제들에 보낸 그의 이스람소개 서신, 이스람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 기독교도 및 유태교 또는 기타 종교에 대한 포교의 종국적인 성공(그의 생전중 및 서거후에 결과된) 등등 실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에게 있어서만 뚜렷한 사실은 그로 하여금 이루어진 전능하신 창조주의 계시로서의 성전(聖典)은 한줄의 삭제나 변경, 정정 또는

발취도 않은채 완벽하게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쿠란의 정확성과 권위성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으로서 그 보존은 가능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읍니다.

그것은 쿠란이전 또는 이후의 어떠한 종교서적과도 비교될 수 없읍니다. 뿐만아니라 이 성전에 쓰여진 언어는 기록어로서 계시 그대로의 원형과 순결과 독자적인 표현법을 지니고 있으며, 헤쟈즈 지방의 방언도 아니고. 생존시 그의 가르침이 보급된 아랍전역의 언어도 아니며, 널리 대서양으로 부터 스에즈에 걸친 북아프리카, 스에즈로 부터 수단에 이르는 동아프리카 및 시리아, 이락에 이르는 아시아지역에도 통하는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는 다른 어떠한 나라의 국어와도 비길 수 없읍니다. 즉 그 본원적인 표현방식, 읽는방법, 구두점 따위의 모두가 계시된 기적서(奇蹟書)의 본으로 1,400년 동안 불변인채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읍니다.

이 쿠란의 아랍어는 종교철학, 의학, 천문학, 기타 과학의 교육용어로서 12세기 동안 뭇 이스람 국가에서 쓰여지므로서, 모록코로부터 필립핀까지, 스톨키스탄에서 인도니지아에 걸쳐, 20세기의 오늘날까지도 이해되어 오고 있읍니다. 이에 비하여 예수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언어 즉 아랍어나, 유태교의 성서인 탈무드나 구약성서의 언어인 히부류어는 모두 죽은 언어가 되어 18세기 이전에 이미 없어진지 오래이며,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성서의 원전어(原典語)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리샤어로 쓰여진 이야기를 최초로, 다음에는 라틴어로 그 다음에는 영어로 가장 널리 보급이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몇번이고 수정되고 재수정되었읍니다.

유태 문헌도 모두 파괴되고, 멸실되고 변혁되었읍니다. 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죽어 없어진 히부류어를 부활시키려는 분투적인 특이한 노력이 최근에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경전 베다는 3,000년 내지 5,000년전에 만들어 졌다고는 하지만 그 출전(出典)의 근거는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그말인 산스크릿트도 오랜 이전에 사어(死語)가 되어 백만명에 한 사람도 그 말을 이행하는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하여 전해진 이 위대한 성서인 쿠란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것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도 타에 유례가 없는 전형적인 기적의 성서라는 점입니다.

충실한 내용의 크고 작은 114장에 이르는 이 성서는 아랍의 지식층 (개인 또는 전체)에 대한 도전이

며 개인 단독이나 혹은 문학인들의 공동집필이라도 좋으니 이와 유사한 문장을 겨루어 만들것을 종용하였지만 1,400년을 거친 오늘날까지도 이 도전에 응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이 미해답인채 남아 있읍니다. 따라서 성전 쿠란은 그 어떠한 장(章)도 문체(文体)나 내용에 있어 견줄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른바 기적적인 성전의 비길데 없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책은 종합적인 원리와 법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지도와 아울러 인간의 역사와 종교사상의 기본적인 지식에 눈을 뜨게 하고, 예지의 개발에 곁드려 우주철학관, 지리학 따위의 연구 조사에 대한 여러 방법을 시사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는 비교종교학의 책이며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의 올바른 관념과 그 특성(귀속),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기구에 있어서의 인간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쓰여져 있읍니다. 이는 사회학의 책이며 역사책인 동시에, 이스람의 기원으로 부터 히즈라(遷移)까지의 멕카에서의 혹심한 시련과 메디나에서의 이스람의 최종 완성의 시련 따위를 통하여 일어난 여러 사건의 실제 기록이기도 합니다.

• 이는 당시 아랍 사막에 한없이 퍼져있는 우상숭배의

야만인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존중에 기적적으로 하나님(唯一神)과, 유일한 예언자와 유일한 경전(經典)에 의하여 통합된 실제기록의 책인 것입니다.

기적중의 기적은 이책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것 처럼 전혀 문맹인 한 사람이 창조주로 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뭇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 걸고 예언자와 동일 행동을 취하고 가진 고생을 몸소 겪은 것은 예언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가 설교하는 진리(그것은 매일 다섯차례, 꼭 같은 시각에 읊어지는 쿠란에 포함되는)에 대한 요지부동의 확신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

성전에 쓰여진 예언자의 칭호는 "나바움미"(文盲의 豫言者)라고 불리워 당시 아랍인의 99.9%를 차지한 백성들과 같이 완전히 문맹인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책이 어떻게 하여 문맹인에 의하여 저술될 수 있었겠읍니까?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쿠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 이외의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문맹의 나라 아랍의 한 문맹의 예언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언어와 문체의 비길데 없는 아름다움과 독특의 포괄적 내용을 갖춘 이 책은 법률적, 역사적,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군사적, 정치적 및 국내, 국제적으로 아울러 다른 종교의 소수파나 문화단체와도 관련하여 당시의 기독교나 유태교 기타 종교 가운데서 두드러지

그릇된 인식과 견해를 추구하였읍니다.

당시 아랍에는 도서관도, 대학도, 비교 연구기관도 없었으며 오로지 널리 백성들의 마음과 기억을 통하여 또한 쿠란속에 깃든 청순하고 공정한 사회학적 법칙을 통하여 영구히 존속되기에 이르렀든 것입니다.

성 예언자는 알라로 부터 받은 계시의 수령자인 동시에 전달자이고 설명자이며, 이 계시는 앞으로의 인류가 따라야 할 길잡이로서 보존 되어 왔읍니다.

성 예언자의 행동의 전과정은, 계시와 성 쿠란속의 가르치심의 실현화에 시종하였읍니다. 이것이 순나입니다. 따라서 순나는 보급을 위한 조치이며 쿠란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었읍니다. 순나는 사하바(추종자)들에 의하여 전폭적으로 실행되었읍니다. 예언자와의 공동이동에서 치른 사하바들의 말할 수 없는 곤경과 희생, 엄정한 규율에 관해서는 쿠란자체에 기술되어 있읍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언자의 실례에 따라 서로 돕고 자진해서 집단의 수호자가 되어 교의(敎義)의 전달자로서 활동하였든 것입니다.

다 아는 바와같이 사하바들은 참으로 헌신적으로 예언자를 따랐으며, 순나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곧 그들의 생활지침 이었읍니다. 따라서 예언자의 순나는 개인적 행동에 있어서나 집단적 행동에 있어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예언자(후의 후계자 : 칼리프)로 뽑힌 지

도자 밑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수행되었든 것입니다.

순나는 성전 쿠란의 명령이 예언자에 의하여 실행에 옮겨진 것이지만, 이 부연활동(敷衍活動)의 기록의 일부는 무하마드의 생전에 쓰여 졌으며, 일부는 사후에 기술되었거나 그후 합쳐서 집제 편집 되었읍니다.

널리 인도(人道)를 위하여 또한 닥아올 앞날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대한 창조주는 마지막으로 순수한 성전속에 예언자 스스로의 뛰어난 선기와 이스람의 발전 전 성장을 저술 하셨읍니다.

또한 이 멧신저가 맨 마지막인 동시에 완전 무결하다는 것도 성쿠란은 무함마드가 예언자로서의 23 년간의 생애에서 내려받은 여러 제시 가운데 전달되어 읊어지고, 가까운 사하바들에 의하여 외어지므로서 기록이 가능했으며, 일부 사하바들은 이를 위해 거의 매일 같이 예언자에게 붙어 살았을 정도였읍니다.

또한 각 제시는 일종의 긴급사항을 포함하므로서 전기(伝記)상의 자료수집에도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더우기 여러 장(章)의 구절이 특히 무함마드가 예언자가 되기까지의 생애, 멕카나 그 근교에서의 적의(敵意)에 찬 환경, 메디나로 옮기기까지의 모욕, 박해 또는 스파이 행위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읍니다. 아울러 메디나에서의 다른 에피소드도 단편적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성전 쿠란 가운데 묘사되어 있읍니다.

메디나에서는 제3자를 포함한 많은 복잡한 긴박상태가 벌어졌읍니다만 그때의 예언자와 측근자들의 뛰어난 모습이 뚜렷이 부각되어 있읍니다. 이는 분명히 인류에 대한 위대한 선물이며 무함마드 이후에는 어떠한 예언자나 사하바도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더우기 예언자 모함마드가 전파한 온 누리를 위한 또한 전세계, 전 시대를 위한 멧시지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위대한 예언자는 타고난 약동적인 인격과 뛰어난 정신력을 갖추고, 애정에 넘쳐 관대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일생을 지낸 분이었읍니다.

예언자의 완전무결한 인간성에 대하어서는 순결하고도 도달 할 수 없는 최고, 유일한 영원히 투명무구(透明無垢)한 존재인 동시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아울러 쿠란 그 자체도 예언자의 고매한 인격에 대하여 만인이 이해하고 추종할 것을 명확히 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어구로서 기술되어 있읍니다. 닥아올 어떠한 세상에서도 길잡이가 될 빛으로서 또한 온 인류와 인종과 피부의 색갈이나 국경의 차별이 없는 범세계적인 경전의 본으로 여겨지고 있읍니다.

23년간의 예언자의 생활가운데 13년간의 긴세월에 걸친 격심한 계속적인 박해는 이스람 사상 매우 뚜렷한 사실입니다. 예언자를 믿었든 백성들은 누구나 그 신앙의 결과로서 고통을 겪었으며, 때로는 스스로의 생

병을 옮기도 하고, 대개의 경우는 가정을 버리고 딴곳으로 옮겨살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적극성에 충만해 있었으며 13년동안의 고난을 치른뒤 기꺼이 예언자와 같이 메디나로 옮겨갔읍니다. 이때의 이주는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사실로 이스람 달력은 당시를 이스람력(暦)제1년으로 치고 있읍니다.

직접 메디나로 혹은 간접적으로 아비시니아를 거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무하지린(移住者)이라고 불렀읍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이나 소유물을 버리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육친이나 친척 예컨대 양친, 처자, 형제, 자매등 조상대대의 종교를 단념할 수 없거나 혹은 이단자로서의 핍박을 꺼려 주저한 자들과 훈연히 결별하여 결의를 실행에 옮겼읍니다. 이러한 사태속에서 이루어진 이주는 물심양면으로 크나큰 곤경에 직면하였지만 이러한 고난이 도리어 그들의 신앙을 더한층 강화시키고 순화시켜 이 한덩어리의 개종자(改宗者)들이 13년에 걸친 빼저린 노력과 고난의 결정을 이룩해 놓았읍니다.

H.G.웰즈는 그 저서 "Outline of History of the Companion" 가운데서 "아랍은 이때 홀연히 선한 백성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읍니다. 이 선한 백성들의 집단이야말로 그 고장의 핵심이 되어 겸허와 온전한 만족으로 노고를 가리지 않고 알라

의 길에 봉사하는 삶의 입김이 되었든 것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와 멧세지에 관한 또 다른 면에서 특기할 것은 그후 수백년동안 예외없이 그의 신봉자들이 인종, 국적, 빈부, 지위의 차별없이 인간의 평등을 금언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람에는 일직이 계층, 인종색의 문제가 논의됨이 없이 세계에서 가장 차별성이 없는 문화집단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읍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세상에 전한 종교인 이스람은 정치적으로도 계속 1,000여년에 걸쳐 세계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왔으나, 한번도 천박한 것으로 여겨진 적이 없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북아프리카나 동아프리카의 갈색 혹은 흑색 인종들로 부터 시작하여 코카사스기원의 백인종 예컨대 터키인, 프랑스인, 아후간인, 중앙아시아나 중국의 몽고족, 동남구주의 스라부족, 인도의 라지풋트족이나, 필립핀에 사는 도라비단, 몽고족에게 까지 파급되었읍니다. 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차별성이 없는 문화집단이라는 실증입니다.

이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습이 다른 사람들간에 인종 문제라고 하는것은 결코 일지 않았었읍니다. 오히려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민족문화(異民族文化)의 결합과 그 결과로서 각종 집단간의 상호이해의 통신수단이나 후진국에 끼치는 문화수준의 향상을 촉구 하였

읍니다. 날마다 다섯번의 예배를 위해 모스크(教会堂) 안에서, 마드라사(宗教学校)의 교실에서, 공중식당이나 호텔 라비에서, 해마다의 하즈(巡礼)의 모임에서, 기타 수많은 종교적, 사회적 집회에서 철저하게 평등, 친애한 상호관계가 대서양으로 부터 태평양에 걸쳐 전 이스람 세계의 북쪽끝에서 남쪽끝까지 한치의 차질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온 것입니다.

이스람에서 보편적인 것은 실행으로서 언사가 아닙니다 지나간 20세기중에서 1년만이라도 세계 어느곳이든지 이와같은 또는 이와 비슷한 일이 왜 크리스천들에 의해 실행되지 못했을까요. 오늘날의 크리스천은 파울의 신봉자들이긴 해도 예수님의 신봉자들은 아니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구라파사람들의 통치시대는 2세기가고작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전에 없든 계급투쟁과 인종투쟁을 불러 이르키므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악독한, 가치없는 적으로 만들고 인도(人道)의 집단 살해를 위해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준비에 분망했읍니다.

인도 교도들은 인종과 피부로 카-스트(階級)제도의 폐지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계속중이며, 불교는 이 계급제도와 바라몬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출발하여 욕망의 부정에 의한 선민적(選民的)종교임을 자인하고 있읍니다.

위대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또다른 특히 걸출한 특징은, 인도(人道)의 지침을 위하여, 알라의 계시와 가르치심으로서 무함마드가 전파한 율법이 단지 온 세상에 아나운스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율법은 짧은 기간내에 현실적으로 실시되었을 뿐더러, 모록코로 부터 틀키스탄에 걸쳐, 틀키스탄에서 인도네시아나 수단에 이르는 이스람권(圈)의 넓은 지역에 획일적으로 파급실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시의 계속적인 박해밑에서 멕카에서의 포교시대는 법률의 발포나 기강의 제정따위를 할 수 없었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시대에 모든 "인간의 행위의 원칙"이 발표되어 예언자와 더불어 신자들은 초월적인 인내로서 이 신앙을 실천했읍니다.

그들은 아무리 괴로워도 생활의 규율을 지키고 신앙에 스스로를 바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이나 재산까지도 돌보지 않았읍니다.

이 시련에 견디어 이긴자가 신앙과 인격을 완성한 참 사람이었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를 온갖 진리의 샘이라고 우러러 받들었으며 그의 언사는 법칙의 해설로 믿었읍니다. 이는 메디나에서의 공적생활의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이미 멕카에서의 계시에서 수차에 걸쳐 알라의 선고가 내려져 있었으며 또한 메디나에서

의 계시에도 반복되었읍니다.

성 예언자는 전능하신 창조주로 부터 받은 계시의 창송자일뿐 아니라, 당연히 계시의 모든 내용의 설명 및 해석과 계시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가르치심의 세목적인 실시 의무를 지고 계셨읍니다.

성전(聖典)쿠란이 한 낱말, 한 구절이라도 변모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오랜 시대에 걸쳐 한 나라로 부터 다른 나라로 전해져 내려 왔다는 사실은 실로 기적이지만, 동시에 예언자에 의해서 이룩된 그 해석과 실시세목이 세대로 부터 세대로 꼭같은 규범으로 이어져 내려 왔다는 것은, 물론 그것이 알라(하나님)의 인도에 의한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되 보통 인간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스람 여러나라를 여행하면서 쿠란(聖典), 순나(言行錄)와 타푸시루(聖典解說)를 예언자가 일러준 것과 꼭 같이 가르치고 있는 마드라사(宗教学校)를 찾아가보면, 수천마일 떨어져 있는 먼 이스람 나라들이 전연 꼭같은 형식의 교육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이는 먼 옛날,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하바(側近者)들에게 일러준 해설과 실시세목이 그후 1,200년 내지 1,300년후에 예언자 하디스(言行錄)라는 책으로 편집된것과 꼭 같은 교과(教科)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무스림(信者)들의 마음속에 불화와 혼란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마련된 비열하고도 파렴치한 수단을 통하여 이스람의 적(敵)들이 과거 시도했든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읍니다. 처음 150년 동안은 예수의 제자들이 성서(聖書)라고 일커른것은 「구약」뿐으로, 「신약」은 4세기에 이르러 많은 승려와 사교(司教)들의 치열한 논쟁과 타협이 있은 뒤에 형채를 갖춘 것입니다.

예수자신은 물론 그의 열두 제자나, 사도 파울 또는 그 직계 교주들은 모두 「신약」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읍니다. 그들은 「구약」만을 알뿐으로 소위 「예수의 제자」라고 일컸는 사람들이 예수로 부터 직접 들은 말을 만들어 낼수는 없을 뿐더러 또한 그들의 서방(西方)의 자료를 통해서도 만들수가 없읍니다.

예수가 모세의 율법의 준봉자(遵奉者)로서 모세의 율법은 일부라도 개변하지 못한다는 성명을 특별히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그가 죽은후 560년후에는 이른바 그의 제자들에 의해 모세의 율법이 전면적으로 폐기되어 인조 율법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뜯어 고쳐졌든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한 나라로부터 나라로,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 소위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분명히 그의 명령이 위반되었읍니다. 인도에서의 힌두교도들의 당시 종교는 엄밀하게 말하여 지역적인 것으로서 세계적 보편성은 찾아 볼 수가 없읍니다. 그들의 법률은 쉴새없이 변화하고 특히 최근의 인도의 독립에 이르러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웨다의 법률 이라든가 "마누의 법률" 따위를 주로하여 결혼, 이혼, 재혼, 카스트(階層), 제도, 상속, 기타 개인관계의 법규를 포함하는 모든것이 공공연하게 폐지 되었읍니다. 새로운 법률이 대체된것은 물론입니다. 허무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는 특별히 인간대 인간의 경제, 가정적, 사회적 사항에 관한 법규는 없으며 일반인의 일상생활의 지침으로서의 종교는 전혀 찾아볼 수 가 없읍니다. 실용적인 종교로 손꼽히는 것은 오직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널리 전파된 이스람교 하나 뿐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성전 쿠란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 예언자의 해설이나 하디스(言行錄)가 입수가능한 사실이나, 현행 아랍어가 1,400년전과 꼭같은 어구나 표현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세계적 자산이며, 세계 이스람 여러나라에서 무스림의 단결과 이스람법을 위해 공헌할 점은 지대한 바 있읍니다. 신명(身命)의 해설과 보급에 있어서 예언자의 책임은 알라에 의하여 무함마드에게 부과되었읍니다. 쿠란가운데 "쿠란의 해석과 보급에 있어 예언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실제로 예언자는 메카에서 이를 13년간 메디나에서 10년간에 걸쳐 실행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23년간에 걸친 예언자의 포교활동을 순나라는 형식으로 사하바(側近者)들에게 전해졌읍니다. 그들은 항상 예언자와 기거를 같이 하면서 주님의 행동을 세상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경애와 집념으로 세대에 전해내려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체계밑에서 일해온 사람들의 전기도 또한 보존되고 있읍니다.

이를 다른 경우와 견주어 보면 예컨대 예수의 전기조차도 이 세상에 없으며 그의 열두사도에 관한것은 물론 고스펠(福音的)이라고 일컷는 공관적(共觀的) 이야기를 남긴 사람들의 전기커녕, 정확한 저작권 조차도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 예언자 무함마드의 유일무이한 특징은 이스람포교와 유지를 위해 어떠한 종교적 특수계급도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스람 바라몬주의(高僧階級)도 승적(僧籍)제급도 없읍니다. 이스람의 전파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학적(学的)인,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졌읍니다. 이는 야화(野火)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히 침투해 들어갔든 것입니다. 이스람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피부나 위(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람이 다른종교에 대하여 베푼 관용은 크리스트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읍니다. 유태교도는 크리

스트교 제국에서 종교재판의 이름아래 조직적으로 처형 되었읍니다. 그들은 도리어 이스람의 여러나라에서 평안한 삶의 땅을 찾았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읍니다.

크리스트교도와 유태교도가 이스람 통치하에서 수백년 동안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자발적으로 집단개종한 보기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서구의 크리스천작가(作家)들은 전에 크리스트교가 지배하고 있든 지역에 이스람교가 급격히 퍼진것은 이 도량넓은 무스림의 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여러번 지적하고 있읍니다. 이스람의 전파는 월급을 받는 선교사에 의해서 성공한것도 아니며, 무역업자나 여행자들의 행실 하나하나가 낯선 고장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드디어 그들이 예로부터 섬겨온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 아마도 그전까지는 백안시하고 미워하든 이스람을 믿게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람을 널리 세상에 전파케 한것은 인간의 머리와 마음에의 호소로서 이 머리와 마음에의 호소는 선행(善行)의 본보기를 재시하므로서만 빛을 발하며, 알기쉬운 교의(教義)와 아울러 이기주의자가 깃들이지 않는 일상생활과, 현세보다도 내세의 일에 생각을 돌리는 자기 희생의 마음가짐이 영향을 미친것은 분명합니다.

이 점에 관한 좋은 보기는 측근자의 한 사람인 사하

바 카람이었읍니다. 예언자는 그들 인류가 따를 이 세상의 별이라고 일컬었읍니다. 이 별들이 2인조, 또는 4인조가 되어 부임했을때 그 나라의 역사는 변하고야 말았읍니다. 이들은 이방인에게는 분명히 다른 세계에서 온 다른 인격을 갖춘 사람인양 받아들여 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역에서는 그 한사람 한사람이 기적의 인물이나 하나님의 화신과 같이 여겨졌든 것입니다. 실로 이 사하바들은 당시 아랍에 널리 퍼져 있든 우상숭배의 다신(多神)교도를 알라(唯一神)에게 일신(一神)교도로 개종케한 예언자 무함마드 자신이 기적일 뿐더러 이 위대한 인물과 더불어 지낸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사람됨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기자신의 조그마한 기적과 같은 결과를 실현한 것입니다. 예언자가 임종의 머리맡에 불러놓고 그 가르침을 온 세계에 전파할 사명을 부여한 것이 이 기적적인 측근자의 일단이었읍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도 없는 정력을 지니고 당시의 세계각국으로 나아가서 최후의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누리에 오직 알라만이 존재하며 무함마드는 그 멧신저이다." 라고 설파하면서 해륙 수천마일에 퍼져 나아가 간략한 혹은 호화로운 모스크(教会堂)가 육로를 거쳐 호라상에 또는 해로를 거쳐 광동에 혹은 서방 모록코에 건립 되었읍니다. 더우기 단기간에 이들

개종자들을 통하여 차차로 이스람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침투해 갔읍니다. 이들 사하바들이나 그 추종자들은 이러한 선교를 깡그리 무보수로 실행 하였읍니다. 다만 내세(来世)에서의 알라(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읍니다. 이스람이 가는곳에 그 가르침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 이론을 밀어제칠 홍수나 나무 잎을 고갈시키는 한발도 없었으므로 이스람은 인간의 체내에 깊숙히 정착하였읍니다.

이스람에는 "직업없는 전도사"가 전혀 없으며 바라몬식의 유급승리계급 같은 제도도 없읍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기께히 해드리기 위해, 그리하여 내세에가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원하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자만이 참다운 신봉자 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또 다른 특징은 그의 명확하고도 끝없는 해설입니다. 우주의 창시자(神)는 하나뿐이며 홀로 가장 높으셔서 하나님을 제외한 일체의 존재—예언자 무함마드 자신 및 다른 예언자들과 성자 및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것은 하나님의 창작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티끌만한 것이라도 피하고자 한 점입니다. 무함마드를 포함하는 뭇 예언자들의 이러한 관념은 그의 경우에는 단지 철학적 관념으로서만 끝인것이 아니라 주야 침식을 같이한 제자들도 이를 철저히 지켰읍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주의명령을 받들어 강직하게 이를 행하였으며 이는 신자들의 대다수가 예상했든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신자들로 부터의 존경이 두터워짐에 따라 더욱 더 그 정신적인 경지가 향상되고,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의 은총으로 구현화된 빛은 한층 더 스스로의 언사와 행동으로 나타났읍니다.

한편 알라(하나님)는 후세를 위한 인도로서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이 세상의 광명과 자비" 또는 지방에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주셨읍니다. 그 모두가 이 위대한 예언자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구한 기록으로서 또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계시의 일부로서 선고되고 전달되었읍니다. 이는 완전무결한 하나님에게 완전 일체화된 관념으로 파악된 완벽한 언행一이 구절은 몇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한 마디 구절은 아랍에서는 누구에게나 법률이상의 것이며, 신성한 예언자의 겸허함과 시종된 일관성은 부수적으로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 참다운 성실성을 나타내고, 그의 고결한 인격은 인간의 물질생활의 놀라움으로 여겨지므로서 외관상의 아름다움이나 자만은 꾸밈없이 완전히 모습을 바꾸어 버렸읍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의 또다른 비길데 없는 특징

은 초자연계나 인생의 개인 행동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다른 예언자는 그만큼 강경하게 이 점을 역설한이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 성공한 이도 없읍니다. 사실 멕카에서의 성 예언자의 일의 대부분은 다음 두가지 점에 집중되었읍니다.
즉 우상숭배의 부인과 심판의 날과 사후(死後)의 세계에 대한 주장입니다. 만일 그가 그중 어느 한쪽의 주장을 늦추었다면 그와 같은 심한 반대나 박해도 전혀 없었을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점은 멕카 사람들이 되풀이 그에게 요망한 것으로 그가 거듭 타협을 거부한 점 입니다. 여기에 이스람의 기본적인 요점이 있었든 것입니다. 예언자 자신의 생활, 그의 가족생활, 또한 사하바(盟友)나 추종자들의 생활은 실로 이러한 사상의 완전한 구현입니다. 현세의 쾌락은 덧없는 것이며 그러한 것에만 마음을 쓰지 말고 최대의 관심은 알라(하나님)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리고 사후의 세계(来世)에서의 영원한 번영의 보증을 이 세상에서 얻는 일입니다. 예언자의 집에 들어오는 물건은 그날 안으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뉘어져 남는 것이 없었읍니다. 이러한 처사로 하여 때로는 가정안의 분위기가 가슴아픈 불만을 불러 이르키기도 하였기에 일반 신자사이에서는 실시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예언자의 가정이 간편한 생활의 모범으로 여겨진 사실에 동조했

것입니다. 주인이 이러한 훌륭한 생활을 하므로서 많은 벗들도 이를 좇아 되도록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힘썼읍니다. 물론 수입한도내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해도 결코 죄악은 아닙니다만,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관념은 쿠란가운데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예언자에 의하여 가족이나 측근 사람들에게 분명히 되풀이 되고 있읍니다. 만일 예언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전에 선행의 기록이 없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서는 구할 길이 없읍니다.

자기의 책임을 남이 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쿠란가운데 알라는 모든것을 용서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예배에 정성을 바치고 죄사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알라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나 참회도 역시 개인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역시 개인적인 행위의 결과에 의하는 것입니다.

죄나 집단구제를 위한 인신공양의 관념은 이스람에는 전혀 없읍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관념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륜(廻輪)사상 밑바닥에는 「최후의 심판」은 없으며 따라서 불교에서는 창조의 신은 없고 아울러·신의 심판도 있을 수

없으며, 유태교는 너무나도 비개방적이어서 그들의 최고 사교(司教)는 로마법왕과 같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점에서 신에 가까운 권한을 지니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람에는 전혀 없읍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의 생활에 대한 확신이 되며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만이 창조주에게 죄사함을 구하는 마음가짐을 지니게 하며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생활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러러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트교도들은 「최후의 심판」의 관념은 지금도 온통 그들의 문헌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읍니다. 또 이 관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은 크리스트교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태도속에 심어보려는 노력도 끝인것 같습니다. 많은 사회과학자나 교직자들은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도덕관념은 완전히 일변한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 50년동안 변천이 심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무엇이 죄에 해당하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하는 것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읍니다. 「죄」라는 낱말의 뜻과 중요성은 상실되었읍니다. 어떠한 나라에서는 「위법행위」라든가 「적법행위」라든가 하는것은 용이하겠지요. 모세의 율법은 1,900년전에 파울에 의해서 폐지되었읍니다. 소위 크리스트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신.구 여러나라에서 오늘날 어떠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읍니까? 의지할바를 구해 방황하는 영혼과 ㅁ

음의 탐구를 진지한 사회과학자 들에게만 맡기고 「최후의 심판」의 관념의 현실적 밀소는 물질사회의 퇴폐적 무종교심으로부터 모든 도덕적 억제를 지워 버리고 종교를 그야말로 뼈없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린것입니다.

인류는 진보하였는지 다 모릅니다. 기술분야에서는 정녕 인간은 진보하였읍니다. 그러나 사회면에서는 다른 많은 동물보다 인간의 규율이 문란해지고 때로는 고부라나 표범의 몇백만배나 해독을 끼치고 무모한 살인자로 변하는 경우조차 있읍니다.

영혼의 세계의 존재를 확신하는 기본적관념 그것은 인간의 생명은 사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즉 육체는 죽음에 의해서 소멸되지만 죽음은 다음의 새로운 세계에의 문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은 깽이나 악인의 놀이터 같은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겉보기의 세계입니다. 이스람의 성 예언자는 거의 그 반생을 알라의 유일성과 신앞에서의 인류의 평등성 및 불가피적인 「최후의 심판」(신이 직접 인간의 생전의 개개 행동에 관하여 질문하시는 최대최종의 재판)을 설파하는데 받쳤읍니다.

그리하여 쿠란의 거의 3분의2는 위에 말한 두가지 점에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읍니다. 몇장(章)만은 전면적으로 그것에만 시종하고 있으며, 특히 「최후의 심

판」과 인간의 현세에서의 개개의 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중대함이 강조되어 있읍니다. 이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이 없이는 무스림(이스람교도)도 있을 수 없으며 구함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확신이 있으므로서 비로소 현세에서의 성실한 행위가 신념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기가 예언자의 사하바(盟友)나 신봉자들로 하여금 예언자가 죽은 후에도 계속적인 성공으로 이끌었든것 입니다 성공에의 수단과 성공에의 도정은 과거에서나 장래에서나 꼭 같을 수는 없읍니다. 특히 이스람초기의 성공은 알라에의 강렬한 신앙과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과 의욕적인 집중활동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앙의 부산물로서 알라의 봉사자들은 끊임없는 마음의 평화와 빛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언제인가는 이 끝없이 훌륭한 우주의 창조주에 접하는 희망을 품고 위대한 예언자 무함마드가 가져다준 메시지에 대하여 특히 말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가족문제와 부인(婦人)의 지위입니다. 19세기까지의 구라파 여러나라에서 부인문제가 어떻게 다루어 졌는가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익히 잘 알고 있읍니다. 이스람시대 이전의 부인들의 생활은 비참한 것이었읍니다. 크리스트는 이를 지지하였으나 크리스트교도들은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되는 그들 스스로의 친족법(親族法)의

제정도 없었읍니다. 사실 크리스트교도들은 그후 광범위하게 로마법을 들여다가 친족법으로 적용하여 왔읍니다. 로마법은 일반적으로 부인들의 지위를 극히 낮게 둠으로서 예언자 크리스트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읍니다. 결혼에 관한 분명한 수속조차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독신주의는 오랜동안 명성을 떨쳐왔읍니다. 크리스트의 High Ups (지도자)들은 부인을 「필요악」 또는 「악마의 앞잡이」따위로 여겨 부인특유의 권리나 특전은 물론 문제로 삼지도 않았읍니다. 부인들에게는 소유권도 상속권도 없었든 것입니다. 예수는 부인도 없었으며 공동 복음서에서도 그의 어머니를 인정하기는 커녕 고려의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읍니다. 가족의 결합, 특히 부인에 관한 문제는 등한시되고 꺼려했읍니다. 부인의 권리를 공공연하게 인정한 것은 예언자 무함마드 였읍니다. 그가 자기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세한 일에 관해서는 쿠란의 여러 귀절에 특기 되어 있읍니다. 이 사실은 그가 54세때 메디나에서의 짧은 생애중에 실행 되었읍니다. 그는 청장년 시대를 열다섯살이나 손위인 여인을 부인으로 지내온바 선량하고 이해에 가득찬 가정을 이룩하였읍니다.

예언자의 다처생활은 메디나로 옮겨간 후의 약 10년간에 걸친 노후의 일이었읍니다. 부인들은 그의 생전과 사후에도 가정내의 일이나 널리 퍼져있는 신도들

의 구룹에 끼어서 가진 목적을 위해 봉사하였읍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스람의 다처주의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배격하고 있으나 이점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구인에게는 다처주의는 원시적 무차별 혼인 또는 Free Sex (이즈음은 서구뿐만이 아니지만)보다 더 부도덕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학 명제를 충분히 토의 하기에는 매우 적절하지는 않으나 단편적으로라도 냉정하게 이에 관해 기술코저 합니다.

예수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조금만치도 바꾸려 들지 않았읍니다. 모세의 율법에는(구약)의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실행한 다처주의를 인정하고 있읍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가 독신으로 지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례요한은 너무 젊어서 일직이 사망 혹은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예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독신주의에 관해서나 일부일처 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령이나 발언도 기록도 없읍니다. 건전한 가정은 사회안정상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기혼부인과 같은 수의 적령기의 미혼여성이 있다고 치고 어떠한 사태로 어느 지역에 기백만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면, 더우기 그것이 미혼여성의 잘못이 아니고 결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극히 중대한 일로서 언제 도덕적 혼란과 촉발을 일으킬런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의 일부의 예는 서구 선진국이나 소위 복지 국가에서 볼 수 있읍

니다.

이미 해마다 상승일로에 있는 이혼율이 그러한 사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그후 상승률이 어느정도 정체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할때 법률상의 번거로운 수속을 밟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백종류의 위법적인 성적 교섭(혼전 또는 기혼자의 이상관계를 포함)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종교 시대 입니다. 법규도 없읍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문명의 파괴로 이끌런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다처주의를 일련의 친속관계로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물론 어떠한 일정한 조건밑에 용인되고 있는 것이며 어느시대 어느 세계에서나 남.녀의 인구비례는 극단적으로 벌어져.예컨대 9.0%에서 15% 혹은 그 이상 사회의 건전성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되는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시에 전 결혼류의 1할을 넘지않는 정도가 바람직하며 대개 여성은 남성보다 장수할 뿐더러 위험한 일을 맡는 경우가 적음으로서 인구비율이 높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처주의의 실행은 과부가 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의 부인 즉 조강지처를 이혼하지 않겠금 하는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다처주의를 필요로 하는 합법적인 이

유가 보다 근본적인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니 여기에서 그것을 규명할 것은 못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영원한 계시인 「쿠란」을 통하여 예언자의 가정생활의 합리성을 다음 세대의 신자들에게 가르치겠금 일러주셨읍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예언자는 유례없는 가장 뚜렷한 혁명을 이룩했읍니다. 아랍은 극히 인구가 희박한 나라의 하나입니다. 지세는 사막과 산지(山地)로 격리되어 도로의 교통도 불편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 혁명의 완성은 특히 그것이 영원한 것일수록 더 한층 초인적 세력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된후 처음 13년동안에 걸친 멕가에서의 생활은 적의와 비난에 가득찬 군중에 대한 교의(教義)의 순나(通告)였읍니다. 그 결과는 거리의 300명 정도의 한숨의 개종자들이었읍니다. 13년의 세월과 뼈를 가는 노력의 성과 였읍니다. 아랍반도의 전모를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후반의 10년간 이었읍니다. 그리하여 지구의 중앙지대가 이스람권으로 깡그리 칠을 바꾸게된것 그에 이은 50년간의 일이었읍니다.

실로 메디나에서의 10년간 낮밤을 한시도 무위(無為)로 허송 세월할 수 없었읍니다. 예언자는 사하바(側近者)나 신자들의 입김으로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도 극히 한정된 시간밖에 갖지를 못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사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움마」를 수행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의 생활위에도 혁명이 불어 닥쳤읍니다. 이와 같이 예언자의 역활은 어렵고도 난처한 것이었읍니다. 거의 날마다 밤낮으로 전도의 일에 자기 시간을 보냈읍니다. 그의 개인생활은 간소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부인들이 도구나 물건짝처럼 취급되는 시대에서 어떠한 고려가 필요한가를 명시해 주지 않으면 안되었든 것입니다. 성전 쿠란은 이의 대량적 실시의 억제를 위해 특히 남성에 대해서는 따로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있읍니다. 즉 자기 부인들에 대한 남성들의 화풀이의 돌파구를 부여함과 아울러 노여움과 자주의 중화(中和를 위해 별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읍니다. 전능하신 알라는 부인들을 옹호하기 위한 한 남성들에 대하여 현세와 내세의 선과(善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인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관대한 취급을 하여 되도록 가족적인 유대를 이어가는데 힘쓰게 하므로서 성 예언자는 가장 압박이 심했든 시대에 그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겠금 하는데 세

심한 주의를 기우렸든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은 검소하기 이를데 없으면서도 예언자가 베푼 친절과 배려의 표준은 의례히 그 사회의 표준이 되므로서 종사하는 이들의 저속한 범규나 취급은 바뀌어 졌읍니다. 따라서 성쿠란에 계시된 일련의 규정과 취급기준은 이를 기록한 순나와 더불어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그와 같은 권위와 장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١٤٠٠ هـ
١٩٨٠ م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للنشر والتوزيع
شارع فهد السالم ـ عمارة الاوقاف رقم ٤
هاتف ٤١٤٢٢٠ ـ ص. ب. ٢٨٥٧ الكويت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٤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تأليف س . م . جميل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٤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الإسلام والرسول

تأليف س. م. جميل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